

화학연구원, 원천기술 외부에서 찾는다!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위치한 한국화학연구원이 미래 원천기술 발굴을 위한 오아시스(OASIS: Open And Seed Innovation for Synergy) 개발에 나섰다.

화학연구원에 따르면, 국내외 대학의 혁신적 아이디어를 지원, 발전시켜 산업계에 기술 이전하는 오아시스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그동안 연구원 내부의 아이디어로 정부의 연구과제 지원사업에 도전, 지원을 받는데 머물렀다면 외부의 우수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학연 협력을 통해 발전시켜 정부의 지원도 받고 중국에 가서는 산업계에 원천기술을 제공할 계획이다.

내부 아이디어만으로는 우리나라 화학산업의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오아시스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자금은 화학연구원이 자체 적립한 것인데 지금까지는 자금을 내부 인 프라 구축이나 연구 아이디어 발굴 지원 등에 쓴 반면 앞으로는 일부를 외부에서 아이디어를 구하는데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화학연구원은 2011년 10개 과제에 1억원씩, 총 10억원을 지원키로 하고 최근 충남대학교 신약전문대학원의 새로운 비만 유전자 NEGR1을 이용한 유전적 비만 발병 기전 접근 및 모델동물 개발 가능성 검증 등 지원대상 과제를 선정했다.

<화학저널 2011/04/25>